

LCD 세계시장 “중국기업 급성장”

디스플레이뱅크,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15% ... 신규라인 속속 건설

중국의 LCD 산업이 급성장해 현재 2% 수준인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0년에는 15%까지 급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10월4일 <중국 LCD기업의 출하량 분석 및 전망> 보고서에서 중국의 몇몇 메이커들이 건설한 5세대 이상의 신규 생산라인이 이미 정상궤도에 올랐고 조만간 2-3개 라인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점유율 급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

세계 LCD 출하량에서 중국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%에 불과했으나 2005년 2/4분기에 2%, 2005년 전체로는 3%에 달하고 2010년 15%, 2012년에는 2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디스플레이뱅크는 중국에서 2006년 2개, 2007년에는 2-3개의 5세대 이상 대형 LCD 생산라인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.

특히, BOE-OT(베이징)와 SVA-NEC(상하이)의 5세대 라인이 가동되면서 대형 LCD 패널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디스플레이뱅크는 중국기업들의 전략은 해외기업과의 제휴나 인수합병(M&A)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중국이 LCD산업에 있어서한국과 타이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06>